

건전한 가족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

윤 소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I.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이후 주40시간 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늘어난 자유시간동안 가정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과 이를 통한 가족의 기능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2007년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제도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42.3%)’를 꼽고 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와 늘어난 여가시간에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이나 가족관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들어 독일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하면서 지역별로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례가 나타나, 가족해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주휴2일제 시행초기 휴일에도 남편 때문에 가사만 늘어났다는 주부들이 남편의 출근을 기다리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은 30~50대에 편중되고 있으며(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0대나 20대의 여가활동은 온라인과 친구 및 또래 집단에 집중하고 있고, 60대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동도 친구나 혼자서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한편, 가족여가 활성화 문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 청소년 자녀의 게임중독과 부모와의 갈등, 가족원내 세대간의 문화전통의 계승 단절, 노인의 여가소외현상,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열쇠아동(자기보호아동)의 증가, 여가에서의 젠더 불평등문제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족해체 문제나 가족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즉 가족여가활동을 통해 생활만족과 행복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생활문화 발전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주체가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다고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가족여가의 성격과 그 본질을 살펴보고자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여가의 실태 및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가족여가에 대한 논의점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에 근거한 국민여가실태 및 가족동반 여가활동의 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13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TF”의 여가관련 추진 사업 중에서 가족여가와 관련된 사업을 발췌하여 가족여가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궁극적으로 가족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기본틀과 기본적인 정책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II. 가족여가에 대한 논의

1.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가족여가인가?

가족여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우선시 되는 것은 가족여가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것이다. 가족여가의 개념을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는 경우(이기영·김외숙·구혜령, 1995; 홍성희, 1996; Shaw, 1997; Shaw와 Dawson, 2001; 홍성화, 2003; 정국현, 2006) 가족여가의 개념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가족여가는 자유시간이나 레크레이션 활동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사용하는 것(Shaw, 1997)을 말하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동거중인 가족구성원 모두의 참여(홍성화, 2003),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홍성희, 1996), 반드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정국현, 2006),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지역숙과 이태진, 2001)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한편, 최석호(2004)는 ‘가족이 여가활동의 단위가 될 수 있는가?’의 의문제기를 통해 해당 가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여가는 파멸을 재촉하는 독이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여가는 가족간의 연대와 친밀성을 더 높여주는 약이다’(최석호, 2004; 51). 즉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해체될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가족여가의 개념과 기능을 논하기 보다 가정 자체의 복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적 여가생활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오히려 가정의 불안정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정의 안정성과 가족원의 결합력을 발달시키고(Orthner와 Mancini, 1990; Hill, 1988; 양영아, 1996),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경이 되며(지영숙, 1999),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장이 되는(Kelly, 1983) 등,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가족원에게 근본적인 자원이 된다(지영숙, 1999)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가족여가는 가족단위로 함께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기능과 결합력을 증가시킬때 그 존재로서 의미 있다. 이러한 논의라면, 가족여가는 단순히 가족구성원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가의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종국에는 긍정적인 기능(예를 들어 가족원의 통합적 기능, 심리적 안정 기능, 교육적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해당된다고 본다. 결국 단순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가족여가로 개념화하는 과정은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2. 가족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은 무엇인가?

가족여가에 대한 두 번째 논의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즉 가족여가의 개념이 가족원이 함께 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가족원의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가족기능의 긍정적인 측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곧 가족여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질을 다루게 된다.

Aron과 Aron(1986)은 부부가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으로 부부관계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와의 장시간에 걸친 활동공유가 자아를 확장하지 못하고 시간만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면 남는 것은 지겨움뿐 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부들은 확장적인 연합활동(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Reissman과 Bergen(1993)도 5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부부들만이 10주후 결혼만족도가 강화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여가활동 자체가 부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결혼생활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일찍이 Orthner(1975)는 부부의 여가활동 유형을 개인활동(individual activities), 병행활동(parallel activities), 공유활동(joint activities)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작용 측면에서 공유활동을 통한 가족여가활동이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Orthner(1975)의 연구를 발전시킨 Holman과 Jacquart(1988) 역시 부부의 여가활동이 함께 참여하는지의 여부와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개인활동(individual activities), 최소 공유활동(low joint activities), 중간 공유활동(moderate joint activities), 최대 공유활동(high joint activities)으로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의 공유활동이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의사소통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역할의 상호변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게임, 공원 나들이, 레포츠활동, 캠핑 등이 속한다.

결국 가족여가는 어떤 상황에서 “관계적인 여가(relational leisure)”이며 공유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과 함께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가족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여가활동은 가족 스스로 체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래 여가활동이 자유시간동안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활동에 체험하려는 의지와 경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족여가를 통해 만족하는가?

가족여가와 관련된 또 다른 논의는 가족여가가 가족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한 역할 결정적 또는 강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다(Kelly, 1983)는 것이다. 즉 의무감이 함축되어 있는 역할 결정적인 활동들은 여가로 경험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가 아닌 것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활동의 참여에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Parnicka, 1995), 가족 자유시간 활동이 어머니에게는 역할의무로서 여겨져 ‘준여가(semi-leisure)’의 경험(Horma, 1989; Freysinger, 1994; Shaw, 1997)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여가(가족여가)와 젠더”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은 가정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제약 요소들을 가지며(Shaw, 1994),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second shift’(Hochschild, 1989)를 경험하게 되어 여가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게 된다(Shank, 1986; Shaw, 1985)고 밝히고 있다. 이로인해 남성과 여성간 여가시간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져오며(Shaw, 1985; Bttman과 Wajcman, 1999; Mattingly과 Bianchi, 2003), 자유시간동안의 여가경험에 있어서도 어린자녀의 존재나 결혼 상태, 부모역할 등으로 인한 시간압박감으로 인해 남성과 달리 중단(fragmentation)과 오염(contamination)을 경험하게 된다(Bttman과 Wajcman, 1999; Mattingly과 Bianchi, 2003; 윤소영과 김현, 2007).

가족여가에서 젠더의 문제는 성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간의 기대되는 성역할의 차이로 남성과 여성이 여가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지며, 그로 인해 가족여가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느끼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 더욱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에 앞서 다른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더 억압을 느끼고 즐거운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Larson & Gillman, 1997).

앞서 논의된 가족의 가능성을 높이고 결속을 증진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욕구나 선택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할때, 가족 단위의 여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의 의문점은 제기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이슈는 가족여가에서의 공동의 욕구와 개인적 욕구의 충돌, 공유활동과 개인활동의 허용 등이 있다. 즉 가족 공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원 개인의 여가욕구가 희생될 경우 가족여가는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리고 반드시 가족여가는 가족이 함께 할때만 가능한 것인가 등의 의문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숙재 외(2004)는 ‘취미생활과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것과 자유시간 동안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은 별개이다. 가족여가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의 평등성과 강제성·구속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 따로 또 같이 노는 것도 가족여가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Ⅲ. 가족여가의 실제 : 여가수요와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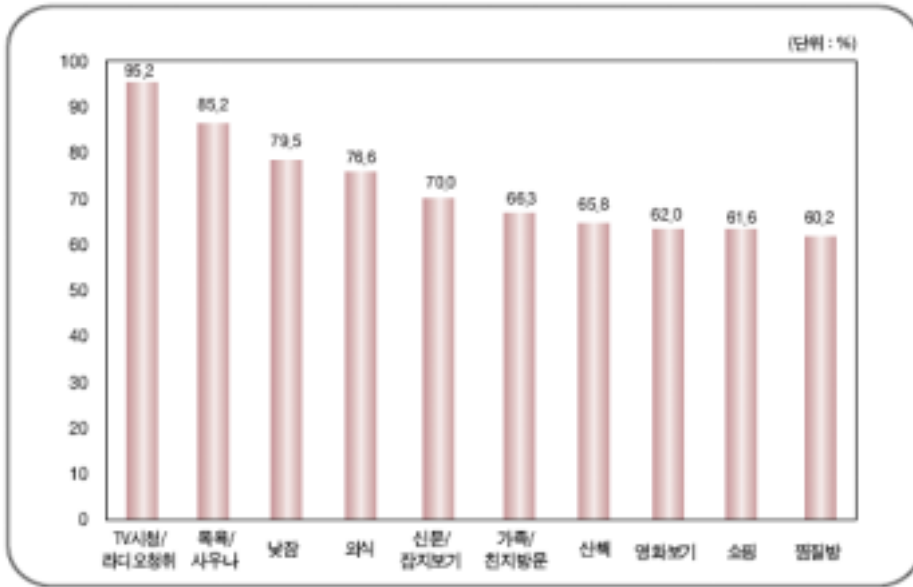
1. 가족여가활동 실태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³⁾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생활은 휴식형 여가활동(TV 시청, 목욕 및 사우나, 낮잠 등)과 사교지향적 여가활동(외식, 가족 및 친지방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활동보다 취미·오락형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여가시간에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95.2%), ‘목욕 및 사우나’(85.2%), ‘낮잠’(79.5%), ‘외식’(76.6%), ‘신문/잡지보기’(70.0%), ‘가족/친지방문’(66.3%), ‘산책’(65.8%), ‘영화보기’(62.0%), ‘쇼핑’(61.6%) 등의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유형별로는 취미·오락활동(31.4%)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10세 이상 전 국민(제주도 제외)을 모집단으로 다단계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3,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여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여가활동 참여실태, 여가자원 이용실태, 주40시간 근무제 평가, 여가환경 및 여가정책 평가, 일반적 특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1:1 면접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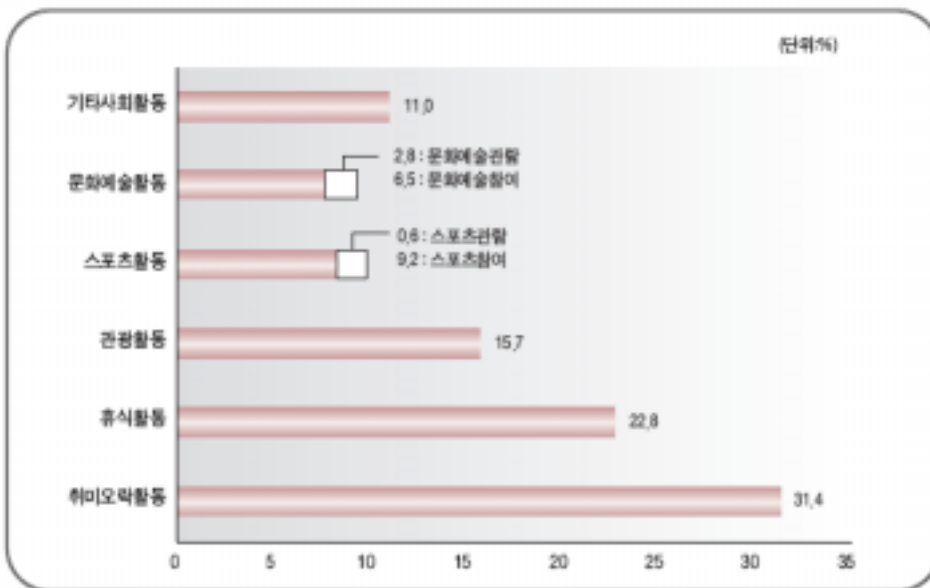
휴식활동(22.8%), 관광활동(15.7%), 스포츠활동(9.8%), 문화·예술활동(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해 동반자 유형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10대와 20대의 경우 혼자서 여가활동을 경험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높았으며, 30, 40, 50대의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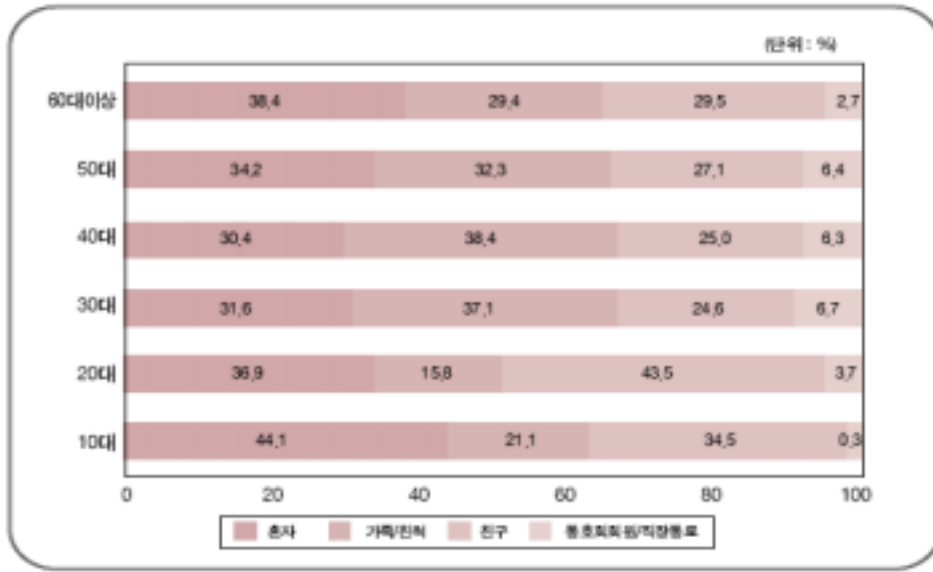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p.83

[그림 1] 2007년 참여비율 상위 10순위 여가활동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p.87

[그림 2]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비율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p.92

[그림 3] 연령대별 여가활동 동반자

<표 1> 여가활동 동반자에 따른 여가활동 순위

활동 순위	혼자서		가족/친척		친구 및 동호회(직장동료)	
	여가활동	N(%)	여가활동	N(%)	여가활동	N(%)
1순위	TV시청/ 라디오청취	441(32.5)	TV시청/ 라디오청취	618(62.8)	영화보기 등 산	59(8.9) 59(8.9)
2순위	인터넷서핑/채팅	142(10.5)	영화보기 등 산	49(5.0) 49(5.0)	-	-
3순위	게 임	123(9.1)	-	-	축 구	56(8.5)
4순위	신문/잡지보기	108(8.0)	종교활동	35(3.6)	잡담/통화하기	55(8.3)
5순위	미니홈피 /블로그관리	70(5.2)	외 식	25(2.5)	계모임/동창회 /사교(파티)모임	32(4.8)
6순위	낮 잠 음악감상	62(4.6) 62(4.6)	산 책	24(2.4)	게 임	30(4.5)
7순위	-	-	목욕/사우나	18(1.8)	음 주	27(4.1)
8순위	헬스(보디빌딩) /에어로빅	59(4.4)	쇼 핑	16(1.6)	헬스(보디빌딩) /에어로빅	26(3.9)
9순위	독서/만화책 보기	53(3.9)	드라이브	13(1.3)	산 책	19(2.9)
10순위	산 책	43(3.2)	소풍/야유회	12(1.2)	TV시청/ 라디오청취	16(2.4)
Total	1356(100.0)		984(100.0)		660(100.0)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또한 여가시간동안 주로 하는 여가활동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화보기, 등산, 종교활동, 외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이나 친구 및 동호회원이나 직장동료와 하는 여가활동의 순위와 구분된다(<표 1> 참조).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은 휴식형 및 사교지향적이며, 취미·오락유형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대부분 TV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TV시청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상호작용이 매우 적은 병행 활동(Orthner, 1975)이나 최소 공유활동(Holman과 Jacquot, 1988)의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족 여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과 이에 대한 가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 가족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현황

2004년 7월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문화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저가로 즐길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각 부처 별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TF 활동의 공식적인 운영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 까지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각 부처들의 건전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이에 2004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건전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별로 추진된 사업 가운데 가족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부서별 가족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 프로그램

담당부서	사업명	해당년도	
문화정책국	가족여가프로그램 운영	2005	
	‘일과 여가균형’척도 개발	2006	
	예술국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가족프로그램 운영	2004 ~
		자녀, 손자 등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족여가프로그램 운영	2006
관광국	가족여행프로그램 확대	2003 ~	
	체험가족 여행단 운영	2006	
체육국	가족운동의 날 운영	1998 ~	
	주말 가족 스포츠 캠프	2003 ~	
여성부	가족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	2004 ~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개발 운영	2004 ~	
	가족친화프로그램 컨설팅 연차적 확대	2006	
	가족휴식지원을 위한 가족캠프 프로그램 운영	2007	
국립중앙도서관	가족독서캠프	2006 ~	
	어린이박물관 주말가족 프로그램	2005 ~	
국립국악원	가족 국악 배움터	2003 ~	
	어린이 가족국악 나들이	2005 ~	
	토요 가족문화 나들이	2005 ~	
	저녁 공연 나들이	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학부모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	2007	

자료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2006 여가백서, p.282-293;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p.316-318.

보충 : 위 두자료의 해당내용 중 가족여가활동증진 사업으로 추정되는 사업만 발췌함

이러한 가족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은 다른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일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가족여가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목표 설정이 뚜렷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지나지 않다고 평가된다. 즉 가족여가가 지향해야 하는 사업의 방향과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의 추진성과에 대해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가족여가는 가족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가족원의 생활만족도와 가족관계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가족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원은 삶의 질, 즉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족여가의 장점이며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당시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생활문화의 발전(28조)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 가운데 ‘가족여가문화’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여가문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발전에 대한 사업이 실제 사업의 운영과정에서는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없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되는 문화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가족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많은 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요리, 비누만들기, 제조, 요가, 댄스, 사진찍기, 다도, 자연걷기, 핸드프린팅 등)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즉 이들의 사업목표가 ‘가족여가문화 정착 및 확대’, ‘가족간의 친밀감 향상’, ‘가족간의 협동심과 일체감 조성’, ‘가족관계 강화’, ‘가족해체 및 결손가정 발생 예방’ 등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단순한 가족간의 여가체험에 그치고 있다고 볼때 가족여가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단위사업들의 방향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IV. 건전한 가족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가족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몇가지 점과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여가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1) 가족여가의 성격을 파악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여가는 단순히 2인 이상의 가족원이 함께 모여하는 여가활동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동을 통한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거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가족여가의 본질적인 특성은 공유성과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일회성의 여가적 체험활동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상호작용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공유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공유성, 상호작용, 지속성).

또한 가족여가는 일상적 가족관계에서 올 수 있는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자아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체험되어야 한다. 현재 가족들이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의 대부분이 TV시청이고 취미오락형의 여가활동이라고 할때 다양한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이나 관광 프로그램,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새로움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다양성, 창의성, 체험 중시).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을 선택하는 기준은 평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해야 한다. 가족 여가도 일반적인 여가적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재미를 주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에 따른 의무감에 근거하거나 강제적으로 참여한 여가활동은 그 만족도가 더욱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평등성, 자율성).

2) 건전한 가족여가 활성화를 지원하는 여가환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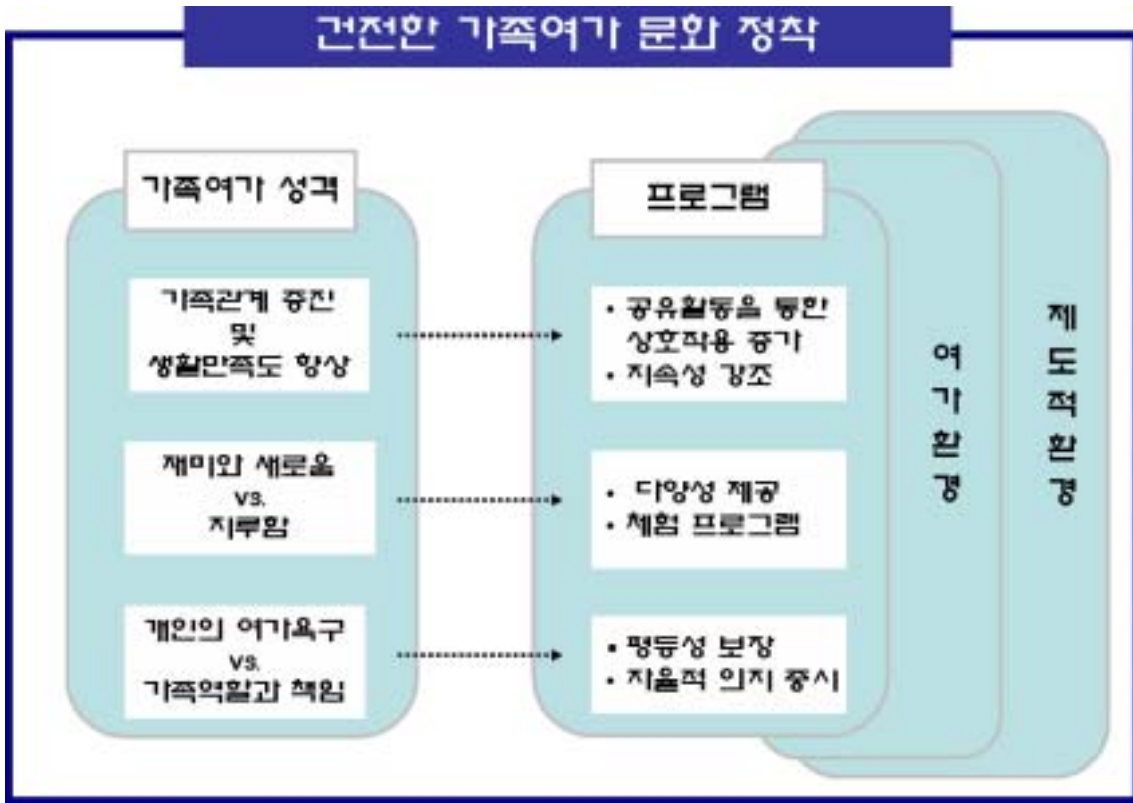
가족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제한이 없지만, 대부분의 가족여가활동이 가정안에서 이루어지는 TV시청이라고 볼때 아웃도어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생활권내 여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권내 소규모 여가시설이나 다목적 복합여가공간을 확충하거나 생활권내 가족공원 등 녹색 여가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또한 기존의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들을 주말동안 가족단위의 주민을 위해 개방하거나 가족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가능하겠다.

1959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도박과 환란의 도시 이미지로 알려진 라스베가스는 1980년대 중반이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이벤트 타운과 세계적 컨벤션 유치를 통한 비즈니스 타운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고급호텔은 어린자녀들을 동반한 가족들의 새롭고 재미있는 체험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여가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0월말 부터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공원이 가족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마공원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가족공원으로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이나 공간기획의 변화는 꺾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3) 지자체 및 기업의 가족여가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현재 각 기업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혹은 카페테리아 제도(cafeteria benefits plan)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일-가족-여가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가족여가활동은 기업의 여가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기업에서 운영중인 '6시 퇴근제', '기념일 조기퇴근제' 등의 여가시간 지원제도나 가족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문화축제(영화제, 지역축제, 지역음악회)나 주민자치센터 문화사업은 가족여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에 기업이나 지자체의 가족여가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계획도 요구된다.

2. 가족여가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 제안



[그림 4] 건전한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기본틀



[그림 5] 건전한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내용

[참고문헌]

- 김광득(1997).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자유출판사.
- 김유경·기은광·이기영(2002). 생활과학에서의 여가연구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3.
- 김정운·이장주(2003). 여가와 삶의 질: 중년부부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 1-9.
- 김혜영(2004). 가족여가와 젠더. 가족과 문화 16(2), 127-166.
- 노용구(2005).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여가정책.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5-15.
- 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2005). 여가문화와 가족. 도서출판 신정.
- 문숙재·윤소영·윤지영(2005).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 만족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31-39.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2006 여가백서.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 신인수·손영미(2006). 가족여가 증진을 위한 가족공원 개념화. 여가학연구 4(2), 39-59.
- 윤소영(2006). 지자체 및 기업의 여가지원제도 연구. 문화관광부
- 윤소영(2004). 주5일 근무제와 가족복지문제. 여가학연구 2(2). 39-52.
- 윤소영·정유희(2003). 핵가족 부부의 가족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자녀 학령기 가족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1), 79-95.
- 윤소영·윤지영(2003). 가족여가 활동유형 및 본질에 대한 연구. 여가학연구 1(2), 11-31.
-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이승미(1997). 가족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43-62.
- 정국현(2006). 가족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가 세대간 커뮤니케이션 촉진 및 세대차이, 세대갈등 그리고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373-392.
- 조한범 외 2인(2005). 가족 구성원의 여가 활동 참여 특성과 여가만족도 및 여가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3), 709-719.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 건강가정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영숙·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 유형-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 지영숙 외 2인(2002). 가족여가 유형이 가족체계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녀교육기의 도시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89-196.
- 최길례·강봉화(2003.2). 가족의 여가활동이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1023-1034.
- 최길례(2003.1). 가족의 여가활동이 정서적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3), 175-184.
- 최길례(2003. 2). 가족의 여가활동이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1023-1034.
- 최석호(2004). 가족과 여가. 여가학연구 1(3). 45-56.
- 통계청(2004). 2004생활시간조사.

- 홍성화(2003). 가족단위 여가활동 참여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 57-71.
-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1-84.
- Berg, B. L.(2007).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ixth edition). Allyn & Bacon.
- Bittman, M. & Wajcman, J.(1999). The rush hour the quality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PRC Discussion Paper No.97*, 1-39.
- Gerson, W. M.(1960). Lei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college married cou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2(4), 360-361.
- Holman, T. B., & Jacquart. M.(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69-77.
- Kelly, J. R.(1997). Changing issues in leisure-family research-agai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132-134.
- Kyle, G. & Chick, G.(2004). Enduring leisure involvement: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s. *Leisure Studies* 23(3), 243-266.
- Orthner, D. 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91-102.
- Orthner, D. K. & Mancini, J. A.(1990). Leisure impacts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25-137.
- Shaw, S. M.(1985). Gender and Leisur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4), 266-282.
- Shaw, S. M.(1994). Gender, leisure, and constraint: towards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women'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1), 1-8.
- Shaw, S. M.(1997). Controversies and contradictions in family leisure: an analysis of conflicting paradigm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98-112.
- Shaw, S. M., & Dawson, D.(2001). Purposive leisure: exam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3, 217-231.
- Zabriskie, R. B., & McCormick, B, P.(2001). The influences of family leisure patterns on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50(3), 281-289.
- Mattingly, M. J. & Bianchi, S. M.(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_The US Experience.*Social Force*, 81(3), 1001-1030.